

한방보험제제의 사상의학적 분류 및 운용

유준상 · 홍선기 · 최은주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Abstract

Herbal Extracts Classification and Application in Terms of Sasang Constitution

Jun-Sang Yoo, Sun-Gi Hong, Eun-Ju Choi

Sangji Kore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1. Objectives

Herbal Extracts are used in Korean Oriental Medicine clinics. The sixty eight kinds of single herbal extracts and fifty six kinds of mixed herbal extracts has been using since the first year of execution of Korean medicine national insurance policy in 1987. This paper was performed to make a guideline of using herbal extracts. Single herbal extracts and mixed herbal extracts were discuss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2. Methods

The sixty eight single herbal extracts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nd fifty six mixed herbal extracts were classified by six Korean oriental medical doctors. Mixed herbal extracts were considered in terms of drug roles[sovereign, minister, assistant and courier(君臣佐使)] or most included ingredient herb.

3. Results

Sasang constitutions which were suitable for fifty six mixed herbal extracts were Soeumin(46.4%), mixed constitution(39.2%) and Soyangin(8.9%), Taeumin(5.3%). Sasang constitutions which were suitable for sixty eight single herbal extracts were Soeumin(47.1%), Soyangin(32.4%) and Taeumin(20.6%).

4. Conclusions

The rate of Soeumin herbal extracts was the most highest among all constitutions. It is regarded that warming and enforcing herb medicine were most used in all prescriptions.

Key Words : Herbal extract, Sasang constitution

• 접수일 2010년 10월 27일; 심사일 2010년 10월 30일;
승인일 2010년 11월 24일
• 교신저자 : 유준상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83
Tel : +82-33-741-9203 Fax : +82-33-741-9141
E-mail : hiruok@sangji.ac.kr

* 본 논문은 2008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Sangji University Research Fund, 2008)

I. 緒 論

한약의 제형은 탕약, 환약, 산약, 고약, 약술(酒劑), 증류한 약(藥露), 약심, 씻는 약, 훈하는 약(熏劑) 등 다양하지만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탕약이다¹.

탕약은 쉽게 흡수되고 치료효과도 비교적 빠르며 제제 준비과정이 간단한 점 등의 특징을 구비하고 있지만, 맛이 쓰거나 혹은 양이 많은 까닭으로 복용과 휴대가 불편하여² 다양한 형태의 제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제형이 있으나 그 중 엑스제는 농축하여 50℃ 이하에서 건조한 것을 냉시 분쇄하여 균일한 분말로 한 것이다.³

보험급여가 되는 한약제제는 현재 단미제제가 68종, 혼합제제가 56종이며, 일본의 경우는 단미로 160종, 복합제는 148종이 있으며⁴, 대만의 경우 보험제제는 단미 118종, 복합제 149종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한약제제의 단미제 68종과 혼합제 56종은 1984년 12월1일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한방의료보험시범 실시와, 1987년 2월1일 한방의료보험 전국실시⁵ 당시부터 동일한 숫자가 보험급여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부형제의 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서 1일 용량이 적은 용량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복합제제와 같이 1포 용량 3~5g과 비교하기에는 많은 용량이다. 보험급여화되는 한약제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본 논문에서는 사상의학적 임상활용이란 면에 초점을 맞춰서 68종의 단미제와 56종의 혼합제의 약성과 주치를 고려하여 사상의학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68종의 단미엑스제를 사상체질에 따라서 분류하고, 56종의 혼합엑스제의 구성약물을 체질별로 분류하여 어느 체질에 적용하기에 유리할지를 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II. 本 論

1) 단미엑스제와 혼합엑스제의 사상체질 분류

한방 보험으로 급여가 되고 있는 68종의 단미엑스제를 『東醫壽世保元』에 근거하여 체질을 분류하였다.

56종의 혼합엑스제는 구성 약물과 양을 기록하고 君臣佐使를 고려하면서 적용 가능한 체질을 살펴본다. 처방의 主藥(君藥)이면서 용량이 많거나 특정 체질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체질로 보고, 2-3개의 체질 약물이 골고루 섞여 불확실한 경우는 ‘?’표로 체크하였다. 해당 체질의 적용 가능한 병증을 고려하여 기록하였다. 6명의 사상체질 관련 한의사가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III. 結 果

혼합제의 경우 소음인 처방은 26개(46.4%), 소양인 처방은 5개(8.9%), 태음인 처방은 3개(5.3%), 혼합 체질 처방은 22개(39.2%)로 나타났다.(Table 1)

병증별로 살펴볼 때, 소음인의 경우 鬱狂證에 14종, 亡陽證에 3종, 太陰證에 15종이 사용될 수 있으며, 소양인의 경우 亡陰證에 1종, 少陽傷風證에 1종, 胸膈熱證에 3종이 사용될 수 있으며, 태음인의 경우 肝燥熱證에 2종, 胃脘寒證에 1종이 사용될 수 있다.(Table 2)

단미제를 체질에 따라 분류했을 때, 소음인 약물은 32개(47.1%), 소양인 약물은 22개(32.4%), 태음인 약물은 14개(20.6%)로 소음인 약물이 가장 많았다.(Table 3)

IV. 考 察

현재 단미엑스제 68종과 혼합엑스제 56종이 국내에서는 1987년 한방의료보험이 시행된 시점부터 증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한방보험제제는 부형제가 많아서 1일 복용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합 엑스제는 보험제제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첨약이 의료보험으로 적용을 받거나 복합 엑스제 중 사상처방약물이 보험급여화 되는 것이 마땅하여 시급한 일이지만, 현 시점에서 단미엑스제와 혼합엑스제를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사상의학적인 관점에서 분류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Table 1. Classification of Mixed Herbal Extract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처방명	구성(g)										사상분류				결론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1 加味逍遙散	當歸 12	芍藥 12	茯苓 12	白朮 12	柴胡 12	梔子 8	牡丹皮 8	甘草 6	薄荷 4	生薑 8	5	5	?						
2 葛根湯	葛根 32	麻黃 24	生薑 24	桂枝 6	芍藥 16	甘草 16	大棗 60				2	5	?						
3 葛根解肌湯	葛根 8	黃芩 8	柴胡 8	羌活 8	石膏 8	芍藥 8	升麻 8	白芷 8	桔梗 8	甘草 4	3	5	2 太陰人 肝燥熱證 陽毒發斑						
4 九味羌活湯	羌活 12	防風 12	川芎 10	白芷 10	蒼朮 10	黃芩 10	生地 10	細辛 4	甘草 4	生薑 14	大棗 10	3	2	6 ?					
5 芎蘇散	黃芩 8	柴胡 8	麥門冬 8	川芎 6.4	陳皮 6.4	白朮 6.4	芍藥 6.4	紫蘇葉 4.8	葛根 4	甘草 2.4	1	3	6 少陰人 鬱狂證						
6 芎夏湯	川芎 8	半夏 8	茯苓 8	陳皮 4	青皮 4	枳殼 2	白朮 2	甘草 2	生薑 23		1	8	少陰人 太陰證						
7 內消散	陳皮 8	半夏 8	乾薑 8	枳實 8	山楂 8	神麴 8	砂仁 8	香附子 8	三陵 8	莪朮 8	茯苓 8	生薑 14	1	11 少陰人 太陰證					
8 當歸連翹飲	白芷 5.6	當歸 5.6	生地 5.6	川芎 5.6	連翹 5.6	防風 5.6	荊芥 5.6	羌活 5.6	黃芩 5.6	梔子 5.6	枳殼 5.6	甘草 5.6	細辛 2.4	6	2	5 ?			
9 當歸六黃湯	黃芪 16	當歸 8	生地 8	熟地 8	黃柏 5.6	黃連 5.6	黃芩 5.6							4	1	2 ?			
10 大柴胡湯	柴胡 32	黃芩 20	芍藥 20	大黃 16	枳實 12	半夏 8	生薑 14	大棗 10						1	2	5 ?			
11 大清龍湯	麻黃 12	桂枝 4	甘草 4	杏仁 16	石膏 10	生薑 14	大棗 60							1	2	4 ?			
12 大和中飲	山楂 16	陳皮 12	厚朴 12	澤瀉 12	砂仁 4	麥芽 16	枳實 8							1	6	少陰人 太陰證			
13 大黃牡丹皮湯	牡丹皮 20	括樓 20	芒硝 12	桃仁 20	大黃 12									3	1	1 少陽人 亡陰證			
14 桃仁承氣湯	大黃 24	桂枝 16	芒硝 16	桃仁 12	甘草 8									1	1	3 ?			
15 半夏白朮天麻湯	半夏 12	陳皮 12	麥芽 12	白朮 8	神麴 8	蒼朮 4	人參 4	黃芪 4	天麻 4	茯苓 4	澤瀉 4	乾薑 2.4	黃柏 1.6	生薑 22	3	1	10 少陰人 太陰證		
16 半夏瀉心湯	半夏 16	甘草 12	人參 12	黃芩 12	乾薑 8	黃連 4	生薑 14	大棗 10						1	1	6 少陰人 太陰證			
17 半夏厚朴湯	半夏 40	厚朴 12	茯苓 16	紫蘇葉 8	生薑 20									1	4	少陰人 太陰證			
18 白朮湯	白朮 24	半夏 12	陳皮 12	茯苓 12	五味子 12	甘草 4	生薑 22							1	1	5 少陰人 太陰證			
19 補中益氣湯	黃芪 12	人參 8	白朮 8	甘草 4	當歸 4	陳皮 4	升麻 3	柴胡 3						1	1	6 少陰人 亡陽證			
20 補虛湯	人參 12	白朮 12	當歸 8	川芎 8	黃芪 8	陳皮 8	甘草 5.6	生薑 14							8	少陰人 鬱狂/亡陽證			
21 茯苓補心湯	芍藥 16	熟地 12	當歸 10	川芎 6.4	半夏 6	人參 6	茯苓 6	前胡 6	陳皮 4	枳殼 4	桔梗 4	葛根 4	紫蘇葉 4	甘草 4	生薑 23	大棗 10	3	2	11 少陰人 鬱狂證
22 不換金正氣散	蒼朮 16	厚朴 8	陳皮 8	藿香 8	半夏 8	甘草 8	生薑 14	大棗 15							8	少陰人 太陰證 鬱狂證			
23 參蘇飲	人參 8	紫蘇葉 8	半夏 8	前胡 8	葛根 8	枳殼 6	陳皮 6	桔梗 6	茯苓 8	甘草 6	生薑 14	大棗 10		2	2	8 少陰人 鬱狂證			
24 參朮健脾湯	人參 8	白朮 8	山楂 8	厚朴 8	陳皮 8	茯苓 8	枳實 6	芍藥 6	砂仁 4	神麴 4	麥芽 4	甘草 4	生薑 14	大棗 25	1	13 少陰人 太陰證			
25 參胡芍藥湯	生地 12	人參 8	柴胡 8	甘草 2.4	芍藥 8	黃芩 8	知母 8	麥門冬 8	枳殼 6.4					3	2	4 ?			
26 三黃瀉心湯	大黃 16	黃連 16	黃芩 8											1	2	太陰人 肝燥熱證			
27 生脈散	麥門冬 16	五味子 8	人參 8											2	1	太陰人 胃脘寒證			
28 小柴胡湯(三禁湯)	柴胡 24	黃芩 16	人參 8	半夏 8	甘草 4	生薑 14	大棗 10							1	1	5 ?			

처방명	구성(g)	사상분류				결론
		太陽 人	少陽 人	太陰 人	少陰 人	
29 小清龍湯	半夏 16 五味子 16 芍藥 6 細辛 6 甘草 6 乾薑 6 桂枝 6 麻黃 6			2	6	少陰人 表證/太陰證 개념도 있음
30 升陽補胃湯	芍藥 12 升麻 8 羌活 8 白芷 8 生地黃 4 熟地黃 4 獨活 4 柴胡 4 防風 4 牡丹皮 4 甘草 4 當歸 2.4 葛根 2.4 肉桂 1.6		7	3	4	?
31 柴梗半夏湯	柴胡 16 括樓 8 半夏 8 黃芩 8 枳殼 8 桔梗 6.4 杏仁 6.4 甘草 3.2 生薑 13.8		2	3	5	?
32 柴胡桂枝湯	柴胡 16 桂枝 8 芍藥 8 人參 8 黃芩 8 半夏 8 甘草 6.4 生薑 4.8 大棗 22 10		1	1	7	少陰人 鬱狂證
33 柴胡疎肝湯	柴胡 16 陳皮 16 柴胡 12 川芎 12 芍藥 12 枳殼 12 香附子 12 甘草 4			1	6	少陰人 鬱狂證
34 柴胡清肝湯	柴胡 16 梔子 12 黃芩 8 人參 8 川芎 8 青皮 8 連翹 6 桔梗 6 甘草 4		3	2	4	?
35 安胎飲	白朮 16 黃芩 12 當歸 8 芍藥 8 陳皮 8 砂仁 8 熟地黃 8 川芎 6.4 紫蘇葉 6.4 甘草 3.2		1	1	8	少陰人 鬱狂證
36 連翹敗毒散	連翹 8 金銀花 8 荊芥 8 防風 8 羌活 8 獨活 8 柴胡 8 前胡 8 茯苓 8 枳殼 8 桔梗 8 川芎 8 甘草 8 薄荷 2 生薑 14		10	1	4	少陽人 少陽傷風證 陽毒發斑 癰疽, 皮膚疾患
37 五淋散	芍藥 16 梔子 16 當歸 8 茯苓 8 甘草 4 黃芩 4		2	1	3	?
38 五積散	蒼朮 16 陳皮 8 麻黃 8 厚朴 6.4 芍藥 6.4 枳殼 6.4 當歸 6.4 乾薑 6.4 桔梗 6.4 茯苓 6.4 川芎 5.6 肉桂 5.6 半夏 5.6 白芷 5.6 甘草 4.8 生薑 14		1	3	12	少陰人 太陰證
39 理中湯	人參 16 白朮 16 乾薑 16 甘草 8				4	少陰人 太陰證
40 二陳湯	半夏 16 陳皮 8 茯苓 8 生薑 13.8 甘草 4		1		4	少陰人 太陰證
41 益胃升陽湯	白朮 12 黃芪 8 人參 6 神麴 6 當歸 4 陳皮 4 甘草 4				7	少陰人 亡陽證
42 人參敗毒散	人參 8 羌活 8 獨活 8 柴胡 8 前胡 8 川芎 8 枳殼 8 桔梗 8 茯苓 8 甘草 8 薄荷 2 生薑 14		6	1	5	?
43 茵陳蒿湯	茵陳蒿 80 大黃 40 梔子 16		1	1	1	?
44 滋陰降火湯	芍藥 10.4 當歸 9.6 熟地黃 8 天門冬 8 白朮 8 生地黃 6.4 陳皮 5.6 知母 4 黃白 4 甘草 4 生薑 14 麥冬 8 大棗 10		4	2	7	?
45 調胃承氣湯	大黃 32 芒草 16 甘草 8		1	1	1	?
46 清上瀉痛湯	黃芩 12 蒼朮 8 羌活 8 獨活 8 防風 8 川芎 8 當歸 8 白芷 8 麥門冬 8 蔓荊子 4 甘菊 4 細辛 2.4 甘草 2.4		3	5	5	?
47 清暑益氣湯	蒼朮 12 黃芪 8 神麴 8 人參 8 白朮 8 陳皮 8 升麻 8 澤瀉 8 青皮 2.4 甘草 2.4 黃白 2.4 麥門冬 2.4 葛根 2.4		2	3	8	少陰人 鬱狂證
48 清胃散	牡丹皮 16 升麻 16 生地黃 8 黃連 8 當歸 8 川芎 8 芍藥 8 熟地黃 20 茯苓 20		3	1	1	少陽人 胸膈熱證
49 八物湯	人參 20 白朮 20 當歸 20 甘草 20 川芎 20 芍藥 20 熟地黃 20 茯苓 20		2		6	少陰人 鬱狂證
50 平胃散	蒼朮 16 陳皮 12 厚朴 8 甘草 4.8 生薑 14 大棗 10				6	少陰人 鬱狂證, 太陰證
51 杏蘇湯(散)	茯苓 16 前胡 16 杏仁 16 半夏 12 枳殼 12 紫蘇葉 8 桔梗 8 陳皮 8 甘草 4 生薑 12 大棗 10		2	2	7	?
52 香砂平胃散	蒼朮 16 陳皮 8 香附子 8 枳實 6.4 藿香 6.4 厚朴 5.6 砂仁 5.6 木香 4 甘草 4 生薑 14				10	少陰人 鬱狂證, 太陰證
53 黃芩芍藥湯	黃芩 16 芍藥 16 甘草 8		1	2		?
54 黃連解毒湯	黃連 10 梔子 10 黃白 10 黃芩 10		3	1		少陽人 胸膈熱證
55 荊芥連翹湯	荊芥 5.6 連翹 5.6 防風 5.6 當歸 5.6 川芎 5.6 柴胡 5.6 枳殼 5.6 黃芩 5.6 白芷 5.6 桔梗 5.6 甘草 4 芍藥 5.6 梔子 5.6		5	3	5	?
56 回春涼隔散	連翹 10 梔子 6 生地黃 6 黃連 6 薄荷 6 枳殼 6 黃芩 6 桔梗 6 甘草 6 當歸 6 芍藥 6		5	2	4	少陽人 胸膈熱證

Table 2. Classification of Mixed Herbal Extract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al Syndrome

체질	병증	처방명	계
少陰人	鬱狂證	芎蘇散 補虛湯 茯苓補心湯 不換金正氣散 麥蘇飲 小清龍湯 柴胡桂枝湯 柴胡疎肝湯 安胎飲 五淋散 清暑益氣湯 八物湯 平胃散 香砂平胃散	26개(46.4%)
	亡陽證	補中益氣湯 補虛湯 益胃升陽湯	
	太陰證	芎夏湯 內消散 大和中飲 半夏白朮天麻湯 半夏瀉心湯 半夏厚朴湯 白朮湯 不換金正氣散 麥朮健脾湯 小清龍湯 五積散 理中湯 二陳湯 平胃散 香砂平胃散	
少陽人	亡陰證	大黃牡丹皮湯	5개(8.9%)
	少陽傷風證	連翹敗毒散	
	胸膈熱證	清胃散 黃連解毒湯 回春涼隔散	
太陰人	肝燥熱證	葛根解肌湯 三黃瀉心湯	3개(5.3%)
	胃脘寒證	生脈散	
太陽人		-	0개(0%)
체질 혼합		加味逍遙散 葛根湯 九味羌活湯 當歸連翹飲 當歸六黃湯 大柴胡湯 大清龍湯 桃仁承氣湯 麥胡芍藥湯 小柴胡湯(三禁湯) 升陽補胃湯 柴梗半夏湯 柴胡清肝湯 人參敗毒散 茵陳蒿湯 五淋散 滋陰降火湯 調胃承氣湯 清上瀉痛湯 杏蘇湯(散) 黃芩芍藥湯 荊芥連翹湯	22개(39.2%)

Table 3. Classification of Single Herbal Extract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체질	제품명	계
少陰人	감초 건강 계지 계피 광항 당귀 대추 도인 목향 반하 인삼 백출 아출 사인 산사육 삼릉 생강 세신 소엽 신곡 육계 인진호 작약 지각 지실 진피 창출 천궁 청피 향부자 황기 후박	32개(47.1%)
少陽人	강활 팔루인 금은화 독활 망초가루 맥아 목단피 박하 방풍 복령 생지황 석고가루 숙지황 시호 연교 전호 지모 치자 택사 형개 황련 황백	22개(32.4%)
太陰人	갈근 감국 길경 대황 마황 만형자 맥문동 백지 승마 오미자 천마 천문동 행인 황금	14개(20.6%)
太陽人		0개(0%)

분류해 보았다.

加味逍遙散의 경우는 少陽人, 少陰人 약물이 반씩 섞여 있어서 불분명하다고 결론지었고, 葛根湯은 葛根, 麻黃이 있고, 葛根이 主藥이며 명칭이 葛根湯이어서 太陰人 체질을 생각할 수 있으나, 桂枝, 芍藥, 生薑, 大棗, 甘草의 桂枝湯에 葛根, 麻黃이 들어가 있어서 애매하다고 판단하였다. 太陰人 체질에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葛根解肌湯은 太陰人 약제 5, 少陽人 약제 3, 少陰人 약제 2가지로 구성되며, 葛根, 黃芩, 升麻, 白芷, 桔梗이 들어가서 柴胡, 石膏가 들어가서 太陰人의 肝燥熱證을 치료하는 처방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九味羌活湯은 少陰人 약제가 6, 少陽人 약제가 3, 太陰人 약제가 2가지 들어 있는데, 羌活, 防風, 生地黃이 少陽人 약물, 白芷, 黃芩이 太陰人 약물, 川芎, 蒼朮, 細辛, 甘草, 生薑, 大棗가 少陰人 약물로 특정 체질로 귀결하기가 곤란한 편이다. 芎蘇

散은 黃芩, 麥門冬, 葛根의 太陰人 약물이 3개, 柴胡의 少陽人 약물이 1개, 川芎, 陳皮, 白朮, 蘇葉, 甘草, 芍藥의 少陰人 약물이 6개로 약의 용량과 개수가 少陰人에게 가깝고 少陰人의 鬱狂證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芎夏湯은 茯苓의 少陽人 약물 1개 외에 川芎, 半夏, 陳皮, 青皮, 枳殼, 白朮, 甘草, 生薑의 8가지 少陰人 약물이어서 少陰人 체질에 적합하다 보았고 少陰人 太陰證에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內消散은 茯苓의 少陽人 약물 1개 외에 陳皮, 半夏, 乾薑, 枳實, 山查, 神麩, 砂仁, 香附子, 三稜, 莪朮, 生薑의 11개 약물이 少陰人 약물이어서 少陰人의 太陰證에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當歸連翹飲은 生地黃, 連翹, 防風, 荊芥, 羌活, 梔子의 少陽人 약물이 6개, 白芷, 黃芩의 太陰人 약물 2개, 當歸, 川芎, 枳殼, 甘草, 細辛의 少陰人 약물 6개로 혼합되어 있어서 판단이 곤란하였다.

當歸六黃湯은 黃芪, 當歸 少陰人 약물이 2개, 生地黃, 熟地黃, 黃蓮, 黃柏의 少陽人 약물이 4개, 黃芩의 太陰人 약물이 1개이며 혼합되어 있으며, 비록 少陰人 약물이 2개이지만 黃芪가 主藥이어서 판단이 곤란하였다.

大柴胡湯은 柴胡의 少陽人 약물이 1개, 黃芩, 大黃의 太陰人 약물이 2개, 芍藥, 枳實, 半夏, 生薑, 大棗의 少陰人 약물이 5개로 少陽人 약물이 하나지만 柴胡가 主藥이고 大黃과 黃芩의 체력이 건장한 자에게 사용되는 면이 있어서 비록 少陰人 약물이 많지만 판단이 어렵다고 보았다.

大青龍湯은 麻黃, 杏仁의 太陰人 약물이 2개, 石膏의 少陽人 약물이 1개, 桂枝, 甘草, 生薑, 大棗의 少陰人 약물이 4개가 있어서 비록 太陰人 약물이 2개이지만, 主藥으로서 판단이 어렵다고 보았다.

大和中飲은 澤瀉의 少陽人 약물이 1개, 山查, 陳皮, 厚朴, 砂仁, 麥芽¹⁾, 枳實의 少陰人 약물이 6개이어서 少陰人 처방 특히 少陰人 太陰證에 가깝다 판단하였다.

大黃牡丹皮湯은 牡丹皮, 瓜蒌仁, 芒硝의 少陽人 약물 3개, 桃仁의 少陰人 약물 1개, 大黃의 太陰人 약물 1개인데, 애매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牡丹皮, 瓜蒌仁, 芒硝가 주로 들어가 少陽人에게 가깝다 생각할 수 있다. 牡丹皮는 荊防地黃湯의 가감에서 血證과 食滯痞滿에 사용되었고, 性味가 辛苦 涼하여 血熱과 瘀血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下行力이 빠르다⁶⁾. 瓜蒌仁은 亡陰證의 荊防瀉白散에 黃蓮과 瓜蒌仁을 더해서 사용한 용례가 있다. 性味는 甘寒하며 熱痰을 淸化시키고 潤燥, 通便, 涼胃의 효능이 있다⁶⁾. 芒硝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사용된 예는 없고, 性味가 辛苦鹹 寒하며 瀉熱通便, 潤燥軟堅의 효능이 있다⁶⁾. 전반적으로 열을 없애며 대변을 잘 나오게 하는 성질이 있어, 荊防瀉白散과 같이 亡陰證 혹은 胸膈熱證의 완만한 변비에 사용할 수 있다 판단되었다. 桃仁承氣湯은 大黃이 主藥이면서 太陰人 약물 1개, 桂枝, 桃仁, 甘草

의 少陰人 약물 3개, 芒硝의 少陽人 약물 1개로 판단이 어려웠다. 半夏白朮天麻湯은 茯苓, 澤瀉, 黃柏의 少陽人 약물이 3개, 天麻의 太陰人 약물 1개 외에 少陰人 약물이 10개를 차지하여 少陰人 太陰證에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半夏瀉心湯은 黃芩의 太陰人 약물 1개, 黃蓮의 少陽人 약물 1개 외에 6개의 少陰人 약물로 少陰人 太陰證에 가깝다 판단하였다.

半夏厚朴湯은 茯苓 외에 4가지가 少陰人 약물이며, 白朮湯은 茯苓 및 五味子 외에 5가지가 少陰人 약물로 2개 처방 모두 少陰人 太陰證에 적용하기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補中益氣湯은 柴胡와 升麻 외에 6개의 少陰人 약물이 있어 少陰人 亡陽證에 가깝다 판단하였다. 補虛湯은 8개 약물 모두 少陰人 약물이었으며, 人蔘, 白朮, 當歸, 川芎, 黃芪, 陳皮, 甘草, 生薑으로 鬱狂證에 쓰는 川芎과 人蔘, 黃芪가 있어 亡陽證 2개 병증에 가깝다 판단하였다. 不換金正氣散도 8개 약물 모두 少陰人 약물이며, 少陰人 太陰證과 鬱狂證에 가깝다 판단하였다.

茯苓補心湯은 熟地黃, 茯苓, 前胡의 少陽人 약물 3개, 桔梗, 葛根의 太陰人 약물 2개 외에 11개의 약물이 少陰人 약물로 川芎, 蘇葉 등이 있어 少陰人 鬱狂證에 가깝다 판단하였다.

蔘蘇飲은 8개의 약물이 少陰人 약물이며, 前胡, 茯苓의 少陽人 약물 2개, 桔梗, 葛根의 太陰人 약물 2개로 蘇葉, 前胡 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 少陰人 鬱狂證에 가깝다 판단하였다.

蔘朮健脾湯은 茯苓 외에 13개 약물이 少陰人 약물로 少陰人 太陰證에 가깝다 판단하였다. 蔘胡芍藥湯은 生地黃이 主藥이며, 柴胡, 知母의 少陽人 약물 3개, 黃芩, 麥門冬의 太陰人 약물 2개, 人蔘, 甘草, 芍藥, 枳殼의 少陰人 약물 4개라 판단이 어렵다고 보았다.

三黃瀉心湯은 大黃과 黃蓮이 主藥이며, 大黃, 黃芩은 太陰人 약, 黃蓮은 少陽人 약으로 太陰人의 肝燥熱證에 가깝다고 보았다. 生脈散은 人蔘이 少陰人 약인 것 외에 麥門冬이 主藥이며, 五味자가 들어 있어 太陰人 胃脘寒證에 가깝다고 보았다.

小柴胡湯은 人蔘, 半夏, 甘草, 生薑, 大棗의

1) 麥芽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복한관 東武遺稿의 藥性歌에서는 少陽人 약물로 설명되어 있으나, 麥芽는 성질이 따뜻한 것으로 脾胃의 虛弱을 補하는 효능이 있어서 少陰人 약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少陰人 약물 5개가 있으나, 主藥인 柴胡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다음으로 太陰人 약인 黃芩이 많아서 판단이 애매하다 보았다.

小青龍湯은 半夏, 芍藥, 細辛, 甘草, 乾薑, 桂枝의 6개는 少陰人 약물, 五味자와 麻黃은 太陰人 약물로 少陰人 表證과 太陰證에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였다.

升陽補胃湯은 生地黃, 熟地黃, 羌活, 獨活, 柴胡, 防風, 牡丹皮의 少陽人 약물이 7개, 芍藥, 甘草, 當歸, 肉桂의 少陰人 약물이 4개, 升麻, 白芷, 葛根의 太陰人 약물이 3개로 처방이름만 보면 升陽의 개념이 있어 少陰人 처방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오히려 少陽人 약물이 더 많다. 세 체질이 골고루 들어 있어서 한 체질로 귀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柴梗半夏湯은 柴胡, 瓜蒌仁의 少陽人 약물이 2개, 黃芩, 桔梗, 杏仁의 太陰人 약물이 3개, 半夏, 枳殼, 青皮, 甘草, 生薑의 少陰人 약물이 5개로 판단이 어렵다고 보았다. 柴胡桂枝湯은 桂枝湯에 人蔘, 半夏의 少陰人 약물이 들어가 모두 7개가 少陰人 약물이며, 柴胡의 少陽人 약물, 黃芩의 太陰人 약물이 들어가 있어서 少陰人의 鬱狂證에 가깝다고 보았다.

柴胡疎肝湯은 柴胡의 少陽人 약물이외에 陳皮, 川芎, 芍藥, 枳殼, 香附子, 甘草의 少陰人 약물이 6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少陰人 鬱狂證에 가깝다고 보았다.

柴胡清肝湯은 柴胡, 梔子, 連翹의 少陽人 약물 3개, 黃芩, 桔梗의 太陰人 약물 2개, 人蔘, 川芎, 青皮, 甘草의 少陰人 약물 4개로 판단이 어렵다고 보았으며, 安胎飲은 黃芩의 太陰人 약물 1개, 熟地黃의 少陽人 약물 1개 이외에 白朮, 當歸, 芍藥, 陳皮, 砂仁, 川芎, 蘇葉, 甘草가 들어가서 少陰人 鬱狂證에 가깝다고 보았다.

連翹敗毒散은 連翹, 金銀花, 荊芥, 防風,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茯苓, 薄荷의 少陽人 약물이 10개 들어가고, 桔梗의 太陰人 약물이 1개, 枳殼, 川芎, 甘草, 生薑의 少陰人 약물이 4개 들어가서 少陽人의 傷風證 혹은 陽毒發斑, 癰疽, 피부질환 등에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하였다.

五淋散은 梔子, 茯苓의 少陽人 약물 2개, 黃芩

의 太陰人 약물 1개, 芍藥, 當歸, 甘草의 少陰人 약물이 3개 들어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판단이 어렵다고 보았다.

五積散은 蒼朮, 陳皮, 厚朴, 芍藥, 枳殼, 當歸, 乾薑, 川芎, 肉桂, 半夏, 甘草, 生薑의 少陰人 약물이 12개, 麻黃, 桔梗, 白芷의 太陰人 약물이 3개, 茯苓의 少陽人 약물이 1개로 구성되어 麻黃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으나, 少陰人 太陰證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理中湯은 모두 少陰人 약물인 人蔘, 白朮, 乾薑, 甘草로 구성되고 少陰人 太陰證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二陳湯은 茯苓의 少陽人 약물 1개 외에 半夏, 陳皮, 生薑, 甘草의 4가지의 少陰人 약물로 구성되어 少陰人 太陰證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益胃升陽湯은 白朮, 黃芪, 人蔘, 神麩, 當歸, 陳皮, 甘草의 7가지가 모두 少陰人 약물이 되어 있으며, 少陰人 亡陽證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人蔘敗毒散은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茯苓, 薄荷의 少陽人 약물 6개와 人蔘, 川芎, 枳殼, 甘草, 生薑 5개의 少陰人 약물, 桔梗의 太陰人 약물 1개로 구성되어 있어 판단이 애매하다.

茵陳蒿湯은 茵陳蒿의 少陰人 약물 1개, 大黃의 太陰人 약물 1개, 梔子の 少陽人 약물 1개로 구분이 애매하며, 滋陰降火湯은 芍藥, 當歸, 白朮, 陳皮, 甘草, 生薑, 大棗의 少陰人 약물 7개와 熟地黃, 生地黃, 知母, 黃柏의 少陽人 약물 4개, 天門冬, 麥門冬의 太陰人 약물 2개로 구성되어 체질판단이 어렵다. 調胃承氣湯은 太陰人 약물 大黃, 少陽人 약물 芒硝, 少陰人 약물 甘草로 구성되어 있어서 판단이 어렵다. 清上蠲痛湯은 黃芩, 白芷, 麥門冬, 蔓荊子, 甘菊의 太陰人 약물이 5개, 羌活, 獨活, 防風의 少陽人 약물 3개, 蒼朮, 川芎, 當歸, 細辛, 甘草의 少陰人 약물 5개로 구성되어 있어, 체질판단이 어려웠다.

清胃散은 牡丹皮, 生地黃, 黃連의 少陽人 약물이 3개, 太陰人 약물 升麻, 少陰人 약물 當歸로 구성되어 少陽人의 胸膈熱證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八物湯은 人蔘, 白朮, 當歸, 甘草, 川芎, 芍藥

의 少陰人 약물 6개, 熟地黃, 茯苓의 少陽人 약물이 2개로 少陰人 鬱狂證에 가깝다고 보았다.

杏蘇湯(散)은 茯苓, 前胡의 少陽人 약물이 主藥이고, 杏仁, 桔梗의 太陰人 약물 2개, 半夏, 枳殼, 蘇葉, 陳皮, 甘草, 生薑, 大棗의 少陰人 약물이 7개로 판단이 어렵다고 보았다.

香砂平胃散은 전부 少陰人 약물로 蒼朮, 陳皮, 香附子, 枳實, 藿香, 厚朴, 砂仁, 木香, 甘草, 生薑의 10가지로 구성되어 少陰人 太陰證에 적합하다 생각한다.

黃芩芍藥湯은 太陰人 약물 黃芩과 少陰人 약물 芍藥, 甘草로 구성되어 판단이 어려우며, 黃連解毒湯은 黃連, 梔子, 黃柏이 少陽人 약물이며, 黃芩이 太陰人 약물로 少陽人의 胸膈熱症에 적합하다 보았다. 荊芥連翹湯은 荊芥, 連翹, 防風, 柴胡, 梔子の 少陽人 약물 5개, 當歸, 川芎, 枳殼, 甘草, 芍藥의 少陰人 약물 5개, 黃芩, 白芷, 桔梗의 太陰人 약물 3개로 구성되어 판단이 어렵다고 보았다. 回春涼膈散은 連翹, 梔子, 生地黃, 黃連, 薄荷의 少陽人 약물 5개와 枳殼, 甘草, 當歸, 芍藥의 少陰人 약물 4개, 桔梗, 黃芩의 太陰人 약물 2개로 구성되어 판단이 어렵지만, 전반적인 성격이 涼寒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少陽人의 胸膈熱證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56종의 혼합엑스제를 체질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는 소음인에게 적합한 처방은 26개, 소양인에게 적합한 처방은 5개, 태음인에게 적합한 처방은 3개, 태양인에게 적용 가능한 처방은 없어 소음인에게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 가장 많았다. 두 개의 체질약물이 반 정도씩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22개로 나타났다.

68종의 단미엑스제 중 체질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소음인 약물 32개, 소양인 약물 22개, 태음인 약물은 14개, 태양인 약물 0개로서 소음인체질의 약물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순수하게 소음인 약물로만 구성되어 있는 平胃散, 香砂平胃散, 不換金正氣散, 理中湯, 益胃升陽湯, 補虛湯과 같은 처방도 있지만, 순전히 소양인 약물이거나 순전히 태음인 약물로만 구성된 처방은 없었다. 대부분은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의 세 체질 약물이 고루 섞여 있는 처방이 대다수였다.

이를 다시 사상체질병증별로 분류를 해 보았다. 소음인 병증의 경우 鬱狂證에 적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는 芎蘇散, 補虛湯을 비롯한 14개 처방이 있었고, 亡陽證에 적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는 補中益氣湯, 補虛湯 등의 3개 처방이 있었으며, 太陰證에 적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는 芎夏湯, 內消散을 비롯하여 15개의 처방이 있었다.

소양인 병증의 경우 亡陰證에 적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는 大黃牡丹皮湯, 少陽傷風證에 적용가능한 처방은 連翹敗毒散, 胸膈熱證에 적용가능한 처방으로는 大黃牡丹皮湯, 清胃散, 黃連解毒湯, 回春涼膈散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태음인 병증의 경우 肝燥熱證의 경우 葛根解肌湯, 三黃瀉心湯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胃脘寒證의 경우 生脈散을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처방이나 약물에서 모두 소음인 체질에게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이나 약물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 ‘古昔以來 醫藥法方 流行世間 經歷累驗者 仲景採摭而著述之 蓋古之醫師 不知心之愛惡所欲 喜怒哀樂偏着者爲病而 但知 脾胃水穀風寒暑濕觸犯者 爲病故 其論病論藥全局 都少陰人脾胃水穀中出來而 少陽人 胃熱證藥 間或有焉 至於太陰人太陽人病情則 全昧也’라 기술된 바와 같이 기존의 한의학에서 활용하는 약물이나 처방이 모두 소음인의 脾胃疾患이나 外感疾患에 관한 약물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소양인 병증, 태음인 병증의 경우 처방들이 2~3개의 체질 약물이 혼합되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소양인에게 적용 가능한 처방들은 清熱 혹은 補陰을 위주로 하여 陰清之氣를 강화시키는 처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태음인에게 적용 가능한 처방으로는 葛根, 黃芩, 大黃, 麥門冬, 五味子, 桔梗 등으로 구성되어 清肝燥熱하고 呼散之氣를 보강하는 약물을 포함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상체질 한약처방이 복합엑스제로서 보험급여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점이 되기까지 현재 사용되는 보험엑스제를 이용해서 처방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단순히 처방이름에 따라서 처방을 할 경우에 체질과 맞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 구성

약물을 분류하고 主藥과 처방의 의도를 살필 때 큰 오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V. 結 論

56종의 혼합엑스제중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상체질은 소음인(46.4%), 혼합체질(39.2%), 소양인(8.9%), 태음인(5.3%)으로 나타났으며, 68종의 단미엑스제중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상체질은 소음인(47.1%), 소양인(32.4%), 태음인(20.6%)로 나타났다.

혼합엑스제나 단미엑스제를 통틀어서 소음인 체질에 적합한 약물과 처방이 많았는데 이는 기존 한의학에서脾胃疾患에 대해서 溫補시키는 약물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서 한방보혈제제의 사용이 활성화되고 사상체질의학적 시각에서의 운용을 하여 임상효과를 사상체질과 연계하는 작업이 추후에 이뤄지길 기대한다.

VI. 參考文獻

1. KISTEP. Medical technology and policy trends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inheriting and developing traditional medicine. Trend Briefs 2010-10.(Korean)
2. Park JH, Seo MJ. The theory and practice of oriental medicine. Gyunggi : Korean Conference Information. 2010:83.(Korean)
3. Park JH, Seo MJ. The theory and practice of oriental medicine. Gyunggi : Korean Conference Information. 2010:71.(Korean)
4. 安井廣迪. 醫學生のための漢方醫學. 日本:東洋學術出版社. 2008:7-10.(Japanese)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Year Oriental Medical Care Survey. Registration number issued : 11-1351000-000223-01.(Korean)
6. Shin MG. Clinical Herbology. Seoul:Younglimsa. 1989:253-254, 484-485, 565-564.(Korean)